

김혜란 연구원

## 요약

미국에서 ESG 투자는 크게 성장했지만, 2021년부터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를 중심으로 ESG 투자에 반대하는 법안이 채택되어 ESG 투자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ESG 친화적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 반 ESG 규정은 ESG 투자가 재무 목표보다는 정책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텍사스주에서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3월에는 연방 의회에서 연기금의 ESG 투자를 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

- 미국에서 ESG 투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했으며,<sup>1)</sup> 일부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ESG에 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함<sup>2)</sup>
  - 2022년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8조 4천억 달러로 이는 미국 총자산의 13%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10년 전 4조 달러 미만의 투자금액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코네티컷주에서는 보험회사가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를 인수하면 보험회사는 화석연료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5%를 매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됨
    - 법안 발의 의원들은 기후 변화 완화 및 대응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이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를 중심으로 ESG 투자에 반대하는 법안이 제안되거나 채택되어, ESG 투자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ESG 친화적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sup>3)</sup>
  - 반 ESG 규정은 ESG가 재무 목표보다 정책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ESG 또는 기후 위험이 자금 조달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음
    - 2022년 12월 18개 주가 반 ESG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텍사스, 플로리다와 같이 공화당이 집권 주임
    - 미네소타와 같이 예외적인 주도 있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ESG 지표 사용 유무를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함
  - 반 ESG 정책을 추진하는 주 정부는 주 연기금의 투자이익 극대화 이외의 목적으로 ESG 요인을 고려하는 자산운용사에 자산 위탁을 금지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음<sup>4)</sup>

1) US SIF(2022. 12. 31), "US SIF "Trends Report" Documents Sustainable Investment Assets Of \$8.4 Trillion"

2) CGA(2023. 1), "Raised Bill", No. 1115

3) Ecofact(2022. 12. 13), "Anti-ESG legislation in the USA: Emerging risk for financial institutions?"

4) Reuters(2023. 1. 18), "Davos 2023: BlackRock U.S. inflows dwarf \$4 bln lost in ESG backlash - CEO"

- 2022년 8월 플로리다주의 반 ESG 결의안(Resolution)에 따르면 연기금 등의 투자 결정 시 전적으로 '금전적 요인'에만 근거해야 하고, 금전적 요인에는 사회적·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이익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7일 이를 공식화함
  - 실제로 플로리다주는 지난 12월 수익보다 ESG에 집중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으로부터 20억 달러를 회수하였으며, 2022년 블랙록은 반 ESG 정책을 추진하는 주로부터 약 4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이 회수됨
  - 또한 반 ESG 정책을 추진하는 주 정부는 특정 산업(화석 연료 또는 총기 제조업체)의 회사를 보이콧하거나 차별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2022년 여름 텍사스주 정부는 정부 기관이 10개의 ESG 친화적인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 주 정부가 ESG 친화적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은 경쟁시장 악화로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추가 이자를 부과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반 ESG 정책을 채택하는 주의 차입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sup>5)</sup>
- 텍사스주에서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개 대형 금융기관이 대출 시장을 떠남에 따라 채권 발행주 간사로 규모가 작은 투자은행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더 높은 차입비용을 부담하게 됨
- 한편, 2023년 2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에너지 사업 및 지역 경제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반 ESG 법안이 발의되었음<sup>6)</sup>
- 최근 발의된 반 ESG 법안은 보험회사가 부보할 기업의 보험료를 결정할 때 ESG 점수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함
    -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환경 및 그와 관련된 이유로 보험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주 제안을 금지하는 것임
    - 주주 제안에는 보험회사가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 제한 및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투자하는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거나 추적하는 것을 포함함
  - 텍사스주에서 영업을 하려면 보험회사는 텍사스주의 허가 및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ESG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Hartford, Allstate 및 State Farm과 같은 보험회사가 텍사스주에서는 영업을 못 할 수도 있음
- 또한, 올해 3월에는 주정부 차원을 넘어 연방 의회에서 연기금의 ESG 투자를 금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sup>7)</sup>
- 2022년 11월 미국 노동부는 연기금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ESG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처를 선택하고, 주주총회에서 대리투표 등을 통해 ESG 관련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그러나 2023년 3월 1일 미국 의회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투자 결정 시 ESG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기존의 노동부 규칙을 뒤집는 결의안이 채택됨
  - 해당 결의안은 3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퇴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향후 투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여 좌초되었음

5) Daniel Garrett and Ivan Ivanov(2023. 2. 14), "Gas, Guns, and Governments: Financial Costs of Anti-ESG Policies"

6) Time(2023. 3. 1), "Lone Star 'Wake Up Call': Texas Republicans Want to Ban ESG in Insurance"

7) Reuters(2023. 3. 2), "U.S. Congress votes to block ESG investing, Biden veto expected"